

2026년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6년 7월 16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신 현 송 의 장 (총재)
장 용 성 위 원
유 상 대 위 원 (부총재)
황 건 일 위 원
김 종 화 위 원
이 수 형 위 원
김 진 일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김 언 성 감 사	권 민 수 부총재보
박 종 우 부총재보	장 정 수 부총재보
김 제 헌 부총재보	이 지 호 부총재보
이 재 원 경제연구원장	이 동 렬 조사국장
최 창 호 통화정책국장	최 용 훈 금융시장국장
윤 경 수 국제국장	임 광 규 금융안정국장
정 희 섭 외자운용원장	백 무 열 법규제도실장
조 용 범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김 용 식 공보관
권 도 근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3호 — 통화정책방향>

(1)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는 조사국장이 보고 제43호 - 「경제상황 평가(2026.7월)」을, 국제국장이 보고 제44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을,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고 제45호 - 「금융시장 동향」을 보고하였음. (보고내용 : 별첨)

(2)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전일 보고내용을 접수하고 「한국은행법」 제28조에 따라 의안 제23호 - 「통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3) 위원 토의내용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토의가 있었음.

(가) 경제상황 평가(2026.7월)

일부 위원은 관련 부서가 금년 5월 청년 고용률이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전체 고용률도 역사적 최저 수준인지 질의하였음. 이어서 청년 실업률은 청년 고용률과 달리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 지표를 기준으로 고용 상황을 해석하면서 상반된 평가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 질의하였음. 또한 최근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쉬었음' 청년층이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 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면, 현재 고용상황을 평가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전체 고용률은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월별 통계가 공개된 1999년 6월 이후로 같은 해 7월의 56.7%(S.A.)가 최저 수준이었던 반면, 청년층 고용의 경우 최근 들어 악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청년층 고용률과 실업률은 시기에 따라 다소 엇갈리기도 하나 긴 시계에서는 두 지표가 함께 악화되는 모습이며, 실업률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변동성이 커서 단기 판단이 어려운 반면 고용률은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유용한 지표라고 설명하였음. 아울러 '쉬었음' 청년은 2022년 이후 40만명대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여건 악화가 장기간 누적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부연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반도체 수출 물량의 변화 없이 가격만 변동할 경우, 실질 GDP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은 어떠한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물량과 품질의 변화 없이 가격만 상승하는 경우 물량 기준으로 측정되는 실질 GDP가 곧바로 늘어나지는 않으나, 늘어난 소득이 소비·투자 등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임금 등을 통해 대체로 시차를 두고 실현된다고 설명하였음. 특히, GDP 및 GDI 성장률 간 격차는 교역조건 개선 등 가격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는 실질구매력을 높여 내수로 환류되면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 변화 없이 물량만 늘어나는 경우 이론적으로 GDP와 GDI 성장률이 같아진다고 부연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유럽 등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주요 기후 예측기관에서 올해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제투자은행 등에서도 기후 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이상 기후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식료품 수급 차질 등을 통해 국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글로벌 이상 기후 충격에 따른 국내 물가 상방압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수입물가를 통한 간접 효과와 국내 농축산물 물가 상승 등의 직접효과 중 어느 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폭염·폭우 등으로 인해 국제 식량가격이 높아지면 국내 물가에도 추가적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평균기온이 상승하면 국내 기후 변화를 통해 국내 농축수산물 물가가 상승하는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기후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직접효과 보다는 수입물가를 통한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첨언하였음. 과거 당행의 연구에서도 글로벌 이상기후 충격은 물가상승률을 유의미하게 높이고 충격의 강도가 커질수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아직까지는 글로벌 이상기후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물가의 수요측 상방압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간헐적 분쟁 발생 가능성,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상방리스크가 예상보다 클 수 있으므로 향후 전망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어서 동 위원은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정부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전망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특히 올해와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이 10% 수준에 달할 수 있어 보이는데, 관련 재원의 상당 부분이 추가 세수로 충당되더라도 재정확대 관련 우려가 채권금리 등 여타 금융시장 변수로 파급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경제여건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인프라 확충은 정부의 재정 투입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향후 관련 계획이 구체화 되는대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음.

이와 함께 동 위원은 현재 경제여건은 성장의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큰 상황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8월 경제전망 발표 시까지 재정지출 확대, 국내 생산 차질

가능성 및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점검해 주기를 관련 부서에 당부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8월 경제전망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향후 물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 모두 반도체 경기 호조,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동시에 유가 하락 가능성, 기저효과 등의 하방요인도 잠재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와 관련하여 물가의 상·하방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물가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현재로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3/4분기에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의 영향으로 건설기성액이 늘어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PF 연체율 상승, 공사 중단 및 착공 연기 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에 관련 부서가 예상하는 건설투자 회복 시점은 언제인지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건설투자의 경우 지난해 말을 저점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상반기중에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변하였음. 다만 메가프로젝트 추진, 반도체 공장 신설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회복 흐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하였음.

이와 함께 동 위원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내수 확대에 따른 물가의 상방압력과 경상수지 개선이 환율절상 압력으로 이어지는 물가 하방 경로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언급하였음.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전례 없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외국인 대규모 주식 매도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율경로보다는 수요측 경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만, 반도체 경기 호조의 수혜가 일부 부문에 집중되면서 낙수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그 크기도 작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수와 물가 양 측면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의 파급 속도와 크기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 당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반도체 산업 밀집 지역과 여타 지역의 가게 미시데이터를 비교하여 반도체 업황 호조가 실제 소비와 물가로 확산되는 경로를 분석해 본다면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첨언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많은 경제주체들이 이번 호황을 일시적인 경기 상승국면을 넘어 대규모 투자와 생산성 향상 등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잠재성장률이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IT 산업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여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혁신 여력이 약화되고, 부문간 불균형으로 성장 저변 자체가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IT 산업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시장 및 재정여건의 안정성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부연하였음. 이에 반도체 부문의 성과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로 확산되기 위한 전제조건과 경제의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환경에서 거시경제 안정 유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 당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반도체 수출 가격이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현재의 양호한 교역조건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가 향후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현재 반도체 경기가 내년도까지는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반도체 경기 정점(peak-out)에 대한 경계심, 중국기업의 반도체 공급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고 반도체 기업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반도체 경기 및 가격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주요 반도체 기업과 국제투자은행 모두 내년까지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고려했을 때 반도체 확장국면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다만, 반도체 경기가 사이클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는 시장 일각의 우려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8월 전망 발표 시까지 다른 기관들의 전망 내용, 반도체 가격 및 수출 동향 등 관련 사항을 두루 점검하겠다고 첨언하였음.

이에 더해 다른 위원도 반도체 가격을 전망하는 데 있어 국제투자은행들의 분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반도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와 함께 동 위원은 높아진 GDP와 이를 상회하는 GDI가 임금과 주식시장, 정부부문을 통해 가계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서 가계의 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진다면 물가 상승압력으로 나타나겠지만 국내저축을 늘릴 경

우 그 형태에 따라 주택가격 및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물가와 금융안정, 특히 금융시장 가격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현재 경제여건을 지난 전망 당시와 비교해 본다면 중동사태 진정으로 인한 유가 하락,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한 명목성장률 상승 및 그 파급 영향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향후 전망 과정에서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소비, 투자 및 재정 등 우리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물론, 그에 따른 수요 압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음.

이와 함께 동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높아지는 것 못지않게, 상당기간 동안 물가압력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당행의 물가목표인 2%로 회귀하지 않을(de-anchoring)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언급하였음. 내년도 근원물가상승률이 공급충격의 간접효과 및 2차 파급효과 등으로 상당히 높게 전망되는 상황에서, 2027년 물가 하방요인인 유가의 기저효과도 2028년에는 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 당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높아진 환율 수준이 수입물가를 통해 직접적으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것 외에도 비교역재를 통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환율상승으로 외국인의 국내소비가 늘어난 반면 내국인의 국외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부서는 이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외국인 국내소비 증가와 내국인 국외소비 감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관련 부서는 향후 기대인플레이션 경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은 서베이 지표인 만큼 앞으로의 경로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실제 물가지표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함께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하였음. 5년 이상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현재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하였음.

이와 함께 동 위원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미국 등과의 통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볼 것을 관련 부서에 당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정책 결정 및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경제전망의 중요도를 고려한다면, 전망의 상하방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리스크의 방향성을 판단한 후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리스크의 정량평가가 쉽지 않겠지만, 분석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줄 것을 관련 부서에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교역조건이 개선되었으나, 반도체 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점, 경기 호조의 수혜가 소수의 기업에 집중된 점 등이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수혜가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된 점이 파급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이겠으나, 금년에는 반도체 수출 증가 규모 자체가 이례적으로 크고 지속기간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과거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최근 정부가 재정운용방향 및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내년도 재정 규모를 금년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 규모'로 발표하였는데, 동 내용을 향후 8월 전망에 잘 반영해 줄 것을 관련 부서에 당부하였음.

이와 함께 동 위원은 그간 정부 재정지출은 관련 사항이 확정된 이후에야 전망에 반영해왔는데, 확대 재정 기조 가능성이 높다면 세부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있더라도 전망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건설경기 관련 기성액 및 수주액 등의 지표는 공장·창고 등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나타난 반면, 건설업 고용은 부진한 모습인데,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건설업 고용 부진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건설 부문의 신규 채용이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하며, 향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건설투자 개선이 고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있는 점도 두 지표 간 흐름이 엇갈리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음. 한편 공장·창고를 중심으로 한 수주 증가는 대부분 반도체 공장 건설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기준금리 조정 시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금리 변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동 위원은 금년 2/4분기 수출에서 반도체 외에도 화공품, 철강제품 수출이 개선된 점은 다행스럽다고 언급하면서, 철강 수출 개선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최근 자료를 보면 미국 내 철강판매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익분기점을 하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증산보다는 재고 판매 등에 집중하면서 고용이나 연계 산업에 대한 후방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철강산업의 글로벌 공급 과잉, 건설경기 부진 등을 감안하면 최근 대미 수출 증가로 업계 전반의 업황이 빠르게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당초 우려보다는 생산부진이 완화되어 부분적으로나마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금년 1/4분기 이후 재고 감소와 함께 생산도 상당폭 늘어나는 등 업황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데이터센터 건설용 고강도·고품질 철강제품 수요 확대로 제품구성이 고도화되면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어 보인다고 첨언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연말로 갈수록 전체 고용이 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상용직과 임시직 비중 등 취업자 구성이 변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함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 당부하였음. 고용여건이 양호한 상용직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처음으로 감소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전체 고용이 유지되더라도 소비 여력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상용직 고용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 상용직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서로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상용직보다 평균 임금수준이 낮은 임시직 등이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가계 전체의 소비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음. 다만, 최근 상용직 감소는 AI 확산,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 외에도 중동전쟁과 같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 중동상황이 다소 진정되고 경제 성장세가 확대되면 상용직 고용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고용 관련 지표들이 포괄범위 차이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최근의 지표들간의 차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 취약부문을 가장 잘 포착하는 지표인 반면, 고용보험과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경우 각각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고정 사업장이 없는 영세업체 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

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여타 통계에 비해 경기와 가장 밀접하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임금 판단 지표로, 고용보험은 세부 산업별 고용 동향 등의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다고 부연하였음.

이와 함께 동 위원회는 취업자 중 청년 비중이 줄어들고, 청년 고용률 역시 감소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 여러 실증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인구집단(cohort)은 여타 집단에 비해 장기간 동안 취업여건 및 임금 등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일본에서도 취업 빙하기 당시 노동시장에 진입한 집단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한 보도가 있다고 소개하였음. 관련 부서가 올해초 청년층 ‘쉬었음’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여 대외 공개하였는데 이제는 동 현상에 대한 정책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실업수당이나 기본소득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시작된 만큼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고민하여 제시해 줄 것을 관련 부서에 당부하였음.

(나) 외환·국제금융 및 금융시장 동향

일부 위원회는 외환시장 야간 연장 시간대의 시간당 거래 규모가 기존 영업시간 대비 어느 정도인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외환시장 야간 연장 시간대의 거래량은 아직까지는 기존 주간시장 대비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회는 최근 국내 주가가 조정국면을 나타내면서 액티브 펀드의 리밸런싱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서 국내 주가 조정폭과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향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과거 미 연준의 금리인상기에 국내 외국인 자금유출입 흐름이 어떠했는지, 향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가시화 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될 경우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금리인상 배경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 우려 증대로 인해 이뤄질 경우에는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겠으나,

AI 산업 등 경기호조로 인한 금리인상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일부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하였음. 2010년 이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두 차례 있었는데, 2016.12월~2018.12월에는 금융위기 이후 첫 금리인상이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신흥국에서 상당 규모의 자금유출이 발생했으나 전체 기간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및 채권 자금 모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3월~2023.7월 금리인상 시에도 주식자금의 경우 초기에는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유출되었다가 이후 국내 주가가 상승하면서 소폭 순유입으로 전환되었고 채권자금은 약 160억 달러가 유입되었다고 답변하였음. 향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채권자금의 경우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더라도 스왑레이트의 움직임에 따라 차익거래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펀드의 전략적 자산 배분, WGBI 편입 수요 등을 감안하면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첨언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2004년~2006년 당시 미 연준의 정책금리가 1%에서 5.25%로 큰 폭 인상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지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당시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도 900원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이에 따른 주식 차익 실현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출되었으나 한국 주식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따른 매도(sell Korea)는 크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6월 중 정기에금 금리 인상과 잔액 증가의 배경이 무엇인지, 최근 주가 변동성 확대에 영향받은 것인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6월 중 은행 정기에금 금리 인상은 은행채 등 시장금리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며, 정기에금 잔액의 경우 주가가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가계의 주식투자를 위한 예금인출이 이어졌으나 일부 은행들이 기업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가계의 주식투자를 위한 기타대출이 늘어나고, 수도권 중저가 주택 대상 주택담보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어서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관리 강화 등이 주담대 수요를 억제하더라도, 신용한도대출 소진율 등을 고려하면 향후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될 여력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최근 신용대출 한도 소진율이 장기평균, 그리고 자산가격 상승기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인지, 앞으로도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6월 말 기준 은행의 신용한도대출 소진율은 2021년 이후의 장기평균을 상회하며, 2021.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수준은 과거 주택가격 상승기 및 주가 상승기 신용한도대출 소진율을 소폭 상회하는 정도라고 첨언하였음. 한도 대출의 경우 차주가 미리 한도를 설정해 놓고 이용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어렵고, 주가 전망 및 개인 주식 순매수 규모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부연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들어 주가 조정에 따른 외국인의 환헤지 포지션 변화 및 리밸런싱 매도세 완화의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이 커지면서 주가와 환율이 함께 하락하는 등 두 지표간의 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인데,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주가와 환율 간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위험회피(risk-off) 국면이나, 주가 상승후 조정 국면에서 차익 실현 목적의 자금유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맞물리는 양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관련 부서가 금년 1~5월 중 원/달러 환율 변동요인을 분해한 결과를 보면, 향후 환율 움직임을 내외금리차 축소보다는 대외요인 변화 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이는데,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의하였음. 이와 함께 7월 중 원/달러 환율 하락에 내외금리차 축소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관련 부서에 추가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내외금리차가 여전히 환율의 중요 결정요인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만, 금리인상 전망이 사전에 반영된 경우에는 내외금리차 수준 그 자체보다는 향후 경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 아울러 글로벌 투자자의 경우 개별국가 요인보다는 미 달러화 지수(DXY) 움직임,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하였음. 또한, 시기마다 환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올해 초에는 중동전쟁이, 그리고 최근에는 주가 상승에 따른 리밸런싱의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다만, 수급불균형이 완화되면 장기적으로 환율은 결국 경상수지, 내외금리차, 성장률 격차 등 경제의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첨언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외부문이 지준 공급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동성 흡수 필요성이 커진 것은 아닌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과거와는 달리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에도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준 상황 및 공개시장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6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이 신용대출 금리 상승폭보다 작은 데에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형 주담대 취급비중이 확대된 영향도 있어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질 경우 향후 금리 인상 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최근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형 주담대 취급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차주의 이자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잔액기준으로는 그간 장기 고정금리형 대출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고정금리형 대출이 65% 내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관련 부서가 기준금리 인상 시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황 여건을 점검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전반적인 소득여건 개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이자상환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기준금리 인상 시 전체 차주의 평균적인 상환부담보다는 취약차주, 한계기업에 대한 영향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이에 금리인상의 영향이 경제주체별로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외 커뮤니케이션해 줄 것을 관련 부서에 당부하였음.

이와 함께 동 위원은 최근 M2 증가율이 여전히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에 대한 리밸런싱이 마무리되고 금리 인상 및 주가 변동성 확대로 은행 수신으로 자금이 유입될 경우 M2 증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서 통화량이 늘어난다면 정책의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기준금리 조정 외에도 유동성 조절 수단이 있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과거 통화량 목표제에서 현행 금리중심으로 통화정책 체계로 전환한 것은 금융시장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통화량과 물가·성장 등 실

물경제 간 연관성이 낮아졌기 때문인데, 현 체계에서 기준금리 조정만으로 M2를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통화정책이 시차를 두고 파급되면서 통화량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영국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배경에 대해 질의하였음.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영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지 않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한다면 영국 국채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영국의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과 함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지속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답변하였음. 특히 GDP 대비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이 3%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차기 총리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 및 2030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도 국채가격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설명하였음. 한편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유럽 전반, 일본 등에서도 재정 관련 이슈가 장기 국채금리의 주요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명목 GDP가 상승하였음에도 환율절상 등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되었던 주요국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통화가치 절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가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견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는데, 경제여건 판단 시 명목 소득 증가가 시차를 두고 물가의 내수 압력을 키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와 관련하여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출가격 하락에 따른 성장의 상방요인과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의 상방요인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종합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와 함께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외국인의 리밸런싱이 마무리된다면, 교역조건 개선 등의 요인이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는지 추가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환율상승이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과거에 비해 약화된 반면, 물가에 대한 전가효과가 저인플레이션 시기보다 커졌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보다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최근에는 외국인 리밸런싱에 따른 대규모 자금유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환율 상승압력이 커졌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 절상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첨언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올해 들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7개월 연속 순상환되면서 금년 상반기 중 회사채 순상환 규모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1년 이후 최대 규모(14조원)를 보인 반면, 금리가 낮은 은행대출이나, CP 등 대체조달 수단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단기자금 조달로 회사채를 통한 장기자금 조달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와 함께, 최근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의 디폴트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회사채 시장에서의 신용경계감이 커지면서 채권발행 시 어려움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금리인상 기조 하에서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은 없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장기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단기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데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높아진 금리 수준에 따른 캐리 투자수요도 있어 기업들이 체감하는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면서 장기조달의 어려움도 완충되고 있다고 부연하였음. 중앙그룹 계열사의 디폴트 역시 발행 채권 대부분을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시장도 개별 기업의 재무적 이슈로 평가하고 있어 신용채권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만,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접어들게 되면 일부 비우량·취약업종 기업의 차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더욱 유의하여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첨언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흐름이 환율 수준의 구조적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국내 연구결과와 재정정책이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 연준의 연구결과를 소개하였음. 이어서 그간 균형환율 수준을 평가할 때 주로 실물경제 및 내외금리차 등에 기반하여 설명해 왔는데, 이외에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행태를 포함한 자금흐름 변화, 재정정책 등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환율은 분석 시계에 따라 주요 설명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연계된 실질 수익률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자본유출입 등 수급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하였음. 최근의 원화 약세 압력은 외국인 리밸런싱 등 단기 수급요인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앞으로 환율 결정요인 및 균형환율 수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원화 매력 증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확대 등을 목적으로 최근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되었는데, 이러한 취지에 맞게 외환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점이 있는지 잘 살펴봐 줄 것을 관련 부서에 당부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야간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제한적인 편이나, 역외 결제시스템과의 연계가 확대될 경우 거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Bernanke 의장 취임 이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포워드 가이드런스(forward guidance) 및 점도표(dot plot)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Warsh 의장 취임 이후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 경우 미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부연하였음. 미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여타 중앙은행에 벤치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논의 내용과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첨언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금년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여러 차례 발동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최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차익실현 및 리밸런싱을 위한 대규모 순매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한 주가 급락시 개인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수급 상황이 반복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신용융자 등 차입을 통한 주식투자도 추격매수, 반대매매 등을 통해 주가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으로 환율 및 시장금리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 간 효율적인 자금 이동이 제약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할 필요하다고 관련 부서에 당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가계부채가 두 달 연속으로 큰 폭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주식자금 수요뿐만 아니라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는데, 통화긴축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이유와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최근 강도 높은 대출규제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주택관련대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 우려와 이에 따른 높은 가격상승 기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신속한 주택공급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 집중된 주택수요 분산이 필요해 보인다고 첨언하였음.

이와 함께 동 위원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개인들이 펀드, ETF 등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 규모를 크게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개인의 주식투자가 ETF 등 간접투자상품 중심에서 금년 2/4분기부터는 직접투자 위주로 변한 것은 그 시점부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조정되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개인들의 국내 주식에 대한 추세적 상승 기대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주가 변동성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대응책이 있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지고, 최근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최근 발표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 물가상승률은 2.6% 정도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 국제투자은행들은 2차 추경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이후 채권시장의 반응에 대해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2차 추경 여부보다는 내년도 국채 발행 물량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데, 채권시장에서는 내년도 세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규모가 크게 줄어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환율 하락 요인이 무엇인지, 주가의 급등락이 진정될 경우 외국인 리밸런싱에 따른 자금 유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지난 달에는 주가 상승에 따른 외국인의 리밸런싱으로 추가 선물환 매입이 발생했던 반면, 최근에는 주가 조정으로 역외 투자자의 선물환 달러 매입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환율 하락압력이 나타났으며, 미 달러화 강세 완화, 일본의 한·일 공조 발언, SK하이닉스 ADR 관련 이슈도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향후 외국인 리밸런싱 규모는 국내 주가와 글로벌 주가의 상대적인 상승폭, 반도체 부문의 주가 상승폭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액티브 펀드의 경우 종목별·산업별·국가별 투자 상한, 리스크 한도 등 각종 펀드 규제에 따라 리밸런싱 규모가 결정되는데, 주가 조정 시 저가매수 수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최근에도 주가 하락시 외국인이 관련 기업 주식을 순매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첨언하였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보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된다면 환율도 점차 안정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수요가 ADR로 이전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 효과가 당초 의도한 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정책 효과에 대해 균형있게 점검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 당부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SK하이닉스는 국내 설비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ADR 상장을 추진하였으며, 당초 목적에 맞게 관련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SK하이닉스 ADR의 초기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면서 국내 투자자가 ADR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낮아 보이며, 최근에는 외국인도 국내 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있어 투자수요가 해외로 이전되는 효과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첨언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현재 가계대출 총량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상황인데 이에 대응한 은행들의 영업전략이 무엇인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최근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자체적으로 축소 한 것과 같이 하반기에도 상반기 대출실적이 관리목표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은행들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총량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여 국채발행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추가 세수 활용방안은 정부 내에서도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내년도 국채발행 증가 여부에 대한 기대가 양분되면서 관련 뉴스에 따라 시장금리가 등락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기존 금융자산을 처분한 자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이득이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주택시장에서 대출규제 등으로 차입제약이 커진 상황에서, 주식 자본이득을 포함한 자기자금이 풍부한 가계의 주택구매가 보다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였음. 정부의 대출규제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계층간 자산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장기 시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주택이 주식에 비해 수익률은 높으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주가 상승 시 주식투자 수익이 주택 등 실물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답변하였음. 최근에도 주가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식·채권 매각자금이 주택 구입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어서 대출규제가 자기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의 주택구입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저가 주택 및 청년계층 등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정책대출도 공급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하였음. 또한 좀 더 긴 시계에서는 주택시장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택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출규제를 통해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첨언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외국인의 리밸런싱으로 상당 규모의 외화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이어서 그간의 리밸런싱 규모를 감안했을 때 향후 국내 주가가 빠른 속도로 반등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규모 및 이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리밸런싱은 차익실현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향후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가 반등할 경우 기존에 유입된 자금을 중심으로 리밸런싱이 재개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신규 외국인 투자자금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현재는 유입과 유출이 모두 확대되는 가운데 유출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으로 외국인 투자 수요가 국내 상장 주식과 ADR로 분산된다면, 향후 주가상승 시 외국인 투자자금의 리밸런싱 압력이 이전보다 줄어 들 수 있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에 대해 양 시장간 가격괴리 등에 따라 자금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일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국가간 자금 이동을 줄여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한편 현재 ADR 비중은 국내 상장주식 규모의 약 2.5% 정도로 그 규모가 작아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며, 향후 ADR 포지션이 확대될 경우 리밸런싱 압력 완화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출된 리밸런싱 자금이 어디로 유입되었는지, 우리나라 주식과 대체관계(substitutability)가 높은 자산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면, 향후 정책대응에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펀드별로 투자전략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내주식 매도 자금이 유입된 국가 및 섹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변하였음. 다만, 리밸런싱이 AI, 반도체 등 특정섹터에 대한 전망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면 유출된 자금이 다른 섹터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 조정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면 해당 기간 중 다른 국가로 자금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의 흐름의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유출된 시기에 대만, 일본의 AI 섹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모습과 특정 충격 발생시 해당 국가에서 동시에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는 등 리밸런싱과 차익 실현 자금흐름이 혼재하는 것으로 보여 좀 더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최근 증권사의 초단기 CP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늘어났는데, 이와 같은 자금조달 행태가 증권사의 선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91일물 등 단기 CP 발행이 원활하게 소화되지 않아서인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증권사는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자금수요의 변동성이 매우 커서 1일물 등을 통한 단기조달이 자금수급을 매칭시키는데 용이하며, 이에 따라 최근 초단기 CP를 위주로 자금조달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반도체 기업들의 CP 및 신용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단기금리 상방 압력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계획 등으로 동 자금이 유출될 경우 단기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반도체 기업들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실행하더라도 실제 투자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여유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유인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다만 자금집행 계획 등에 따라 대기성 자금이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유출될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일시 확대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관련 부서가 금리상승 시 저소득층 중 고신용자 그룹의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동 그룹의 소득은 적지만 자산은 많을 수 있는 만큼,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통해 해당 그룹의 자산 규모를 추정해 본다면 실제 채무상환 부담 정도 및 취약차주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가계의 소득 이외의 자산과 관련한 미시 데이터를 관련 분석에 활용하여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좀 더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 보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해외 연구자료에서 수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 개선이 국내 신용, 성장률, 더 나아가 경기순환(business cycle)의 변동성 증폭에 미치는 영향과 거시경제 정책(macroeconomic policy) 및 금융안정 정책(macprudential policy)에 대한 시사점이 제시된 바 있다고 소개하였음. 이와 같은 연구자료와 과거 우리나라 및 여타 국가에서의 교역조건 개선 당시 사례를 참고해봤을 때, 현재의 교역조건 개선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과거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원자재 수출국에서 원유 및 주력산업 수출 확대로 기업수익성 및 대외건전성이 제고되고 신용 공급이 크게 늘어났던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4~2015년 유가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M2 증가율이 상승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에는 유럽 재정위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던 시기라서 현재 상황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부연하였음. 이어서 최근의 상황을 평가해 본다면, 외국인 대규모 주식 순매도가 없었다면 M2 증가율이 현재보다 상당폭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외국인 주식 순매

도가 완화될 경우 통화증가율 상승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과거 사례 및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고 당시 거시경제여건 등을 참고하여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좀 더 분석해보겠다고 첨언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주택시장 과열과 금융불균형 억제를 위해 가계대출을 타이트(tight)하게 관리하면서 주택구입자금 조달방식 중 증여와 상속의 역할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자산양극화와 소비 및 저축에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부서에 당부하였음.

(다)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토론

관련 부서에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동향, 시장의 기준금리 기대, 금융상황 및 유흥생산능력 판단지표 등 통화정책 여건 자료와 함께 ‘명목성장률 급등에 따른 금융·경제 영향 점검 및 시사점’을 참고자료로 보고하였음.

참고자료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최근 교역조건의 큰 폭 개선과 이에 따른 명목성장률의 이례적인 확장세는 기업의 이익증가와 가계의 임금 및 자산소득 증대, 정부의 세수 확충 등을 통해 성장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였음. 하지만 명목성장률 확대는 그간 높아진 비용 상승의 영향이 파급되는 상황에서 수요측 물가압력을 높여 기조적 물가압력을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금융여건 완화와 위험선호 변화를 통해 금융불균형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대규모 교역조건 충격이 발생했던 주요국 사례에서도, 교역조건 개선이 경기 개선과 함께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을 초래했으며, 이후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경기 둔화와 자산가격 조정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음. 이와 같은 명목성장률 큰 폭 확대의 영향을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적인 운용을 통해 물가 및 금융안정을 도모해나갈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명목 GDP 증가로 세수가 확충될 경우 국채발행 규모가 변할 수 있는 만큼 국고채 금리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들은 높은 환율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 재정지출 증가 등이 수요측 물가압력을 통해 기초적 인플레이션을 높일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며, 가계 소득 증가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물가 오름세 확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정정책, 거시건전성정책 등과의 바람직한 정책조합(policy mix)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과거 주요국의 대규모 교역충격 발생 사례에서 정책 당국이 간과한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교역조건의 큰 폭 개선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과거 주요국의 장단기 정책대응 경험을 토대로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를 면밀히 살펴보고겠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경제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구조적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립금리 추정시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최근 경제지표의 급격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판단지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4)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 개진

당일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 개진이 있었음.

모든 위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2.50% 수준에서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현재 2.50%인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세계경제는 AI 관련 투자 붐에 힘입어 대체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동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재차 고조되는 등 관련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종전합의 후 큰 폭 하락하였던 국제유가도 낙폭을 일부 되돌리면서 주요국의 물가 관련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등으로 미 달러화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한편 장기 국채금리도 상당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반도체 등 AI 관련 기술주를 중심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AI 확산 수혜로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전례없는 호조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내수 부문도 가계의 소득 개선 및 기업의 투자 확대에 점차 개선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상당폭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간 누증되어 온 비용압력과 농축수산물가격 상승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며, 당분간 3% 내외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압력이 더해지며 근원물가의 오름세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국내외 금리인상 기대 강화, 미-이란 간 종전합의 상황 및 유가 흐름 등에 따라 등락하였으며, 주가는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반도체 업종 주가의 조정 분위기 속에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등에 영향받아 큰 폭 반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변동성이 금융위기 정점 수준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과도한 변동성 장세에서 개인들의 신용거래나 대출을 통한 투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1,550원대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수급 불균형 완화 등으로 1,400원대 후반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민간 부문의 금융거래에 주로 영향받아 높은 환율 수준이 이어지면서 가계의 물가부담과 수입 및 내수 기업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외환시장의 심도 제고를 통해 환율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부합하

는 수준에 안착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5월 중 수도권 주택거래 증가, 주식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증가하였으며, 당분간 증가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흐름을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명목GDP의 큰 폭 증가로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크게 하락하겠지만, 이는 가계부채 자체의 디레버리징이나 질적 개선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점차 내수 부문으로 파급되어 가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물가도 목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가와 환율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확대 등 금융불균형과 관련한 리스크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여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과 관련하여서도 비용 및 수요측 물가 상방압력과 경기 개선흐름, 환율 및 가계부채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인상 시점과 인상폭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현재 2.50%인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국내 실물 경기 흐름, 외환·금융시장 동향 및 예상되는 경제 전망을 감안할 때, 금번 회의에서는 현 2.50%의 기준금리를 2.75% 수준으로 0.25%p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중동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그간의 충격 여파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물가의 공급측 압력은 완화되었으나 성장세 확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수요측 요인에 더해 지속적인 높은 환율 수준으로 물가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본시장에서의 레버리지 투자 증가는 금융불균형을 누증시키면서 금융안정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으로서 최우선 당면과제인 물가·환율 등 통화 가치 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하는 집중적 정책 대응이 요구됩니다. 다만, 경기 호조의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 계층 및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위축되고 있는 청년층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된 재정 여력을 기반으로 선별적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한편, 경제 각 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현재의 정치적·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이 노동 부문 등 구조개혁에 최적기라고 생각하며, 적시에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잠재성장률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현재 2.50%인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세계경제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지만, 그간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침에 따라 주요국 대부분에서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는 IT부문이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례 없는 호조세를 보이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가격 급등으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이 명목성장률을 크게 높이면서 기업의 영업이익 확대,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 정부의 세수 증대 등으로 이어지고, 이에 힘입어 내수 경기도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5월 전망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반도체 경기의 호조 지속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과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가능성에는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경기개선에 따른 수요압력, 지난 공급 충격의 여파, 원화 약세 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뿐

아니라 근원물가 상승률도 내년까지 목표 수준인 2%를 상당폭 웃돌 전망입니다. 특히 명목성장률의 큰 폭 확대가 경제 전반의 수요압력을 추가로 높이면서 기초적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중동사태의 전개 상황,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AI 투자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장 단기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으며,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등으로 높은 수준에서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주택관련 및 주식투자 목적의 가계대출 증가와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확대 등 금융 불균형의 누증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상의 경제·금융 상황을 종합해 보면, 성장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금년과 내년 중 잠재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GDP갭도 점차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간 높아진 비용압력이 당분간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명목성장세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로 기초적인 물가압력이 보다 크고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수도권 주택시장, 가계부채 상황과 높은 환율 변동성 등에 대해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통화정책은 적절한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및 금융 안정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지속 시 우려되는 물가 불안 리스크가 인상 전환에 따른 성장 둔화 리스크보다 크고, 자산시장 등 금융안정과 관련된 위험도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물가를 중심으로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정부 경제정책의 영향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초적 물가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과 세심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과 물가안정 기조 정착 노력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현재 2.50%인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지난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중동사태는 미·이란 간 합의로 긴장이 한때 완화되었으나, 최근 무력충돌이 재개되면서 다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압력이 누적되는 가운데 6월 중 ECB와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인상하였고, 미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안정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 금리경로에 대한 시장 기대가 조정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증대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과 미 달러화 강세로 높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외환시장 유동성과 외화자금 조달여건은 대체로 양호하였습니다. 향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수출 호조와 해외 자금조달 등이 외화수급 개선에 기여하겠으나 주변국 통화 움직임, 국내 증시 변동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리밸런싱 동향 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중동발 공급충격 완화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1/4분기 성장률이 상향 수정되었고 2/4분기에도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관련 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기업이익과 가계소득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로 파급될 것이 예상되고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계획도 진행됨에 따라 성장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기개선 흐름의 확산 정도와 시차에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3.1%, 6월 3.2%로 두 달 연속 3%를 상회하였으며, 근원물가도 2.5%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소비자물가의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하겠지만, 기업의 투자 확대와 가계소득 개선이 수요를 뒷받침하고 높은 환율의 비용전이도 이어질 경우 근원물가의 둔화는 예상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물가는 수요 여건에 민감하고 조정 속도도 느리므로 그 오름세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물가의 목표수준 수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완화 흐름이 상당폭 되돌려졌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SI 투자 둔화 우려와 외국

인 매도세가 겹치면서 급락하였고, 서킷브레이커가 잇달아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동시에 금융불균형 우려는 좀 더 증대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과 주식투자과 관련이 있는 은행 기타대출, 증권사 신용융자까지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지난 회의 이후 물가 우려가 증대되었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어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커진 반면, 성장세는 한층 견조해지면서 인상에 따른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현재 2.50%에서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기준금리 운용은 이번 인상으로 물가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장·물가 전망경로에 상응하도록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의 확산 정도와 물가 흐름, 그리고 금융안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새롭게 입수되는 정보에 비추어 전망 경로와 리스크의 정도를 다시 가늠해 보고 선제적 대응과 점진적 대응의 득과 실을 비교하면서 인상 속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역조건의 전례 없는 개선은 경기 사이클뿐 아니라 금융 사이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여 관련 당국과의 정책조합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현재 2.50%인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중동사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세계 경제는 견조한 AI 투자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금년도 1/4분기 실질소득 증가율은 무려 두 자릿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이 같은 성장세가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내수의 기반인 만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고환율의 영향으로 6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로 전월보다 다소 높아졌고, 생활물가 상승률은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정부의 규제방침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우려 지속, 추가 상승 기대, 주식 매각 자금 유입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가 지속 될 것으로 보여 경계감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실물 경제의 성장률이 당분간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고 환율의 2차 효과 및 호황에 따른 수요측 압력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여 물가상승 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실물 경제와 물가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현재 2.50%인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세계경제는 중동지역 에너지 공급망 차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6월 이후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나, 최근 양국 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며 하락 폭의 상당 부분이 상쇄되었습니다. 중동 정세는 종전 협상 논의의 진전과 군사적 긴장 고조가 반복되는 등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호르 무즈 해협의 통항 정상화와 종전 여부 등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리와 주가 등 주요 가격변수가 중동 정세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따라 변동하였습니다.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6월 FOMC 결과에 대한 매파적 해석 으로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독일 등 주요 국 국채금리는 금리인상 기대 및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AI 업황과 종전 기대가 변화함에 따라 등락하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인 수요 우위와 이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내수 여건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반도

체 호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기업 및 가계의 소득 개선이 투자와 소비 등을 통해 내수로 점차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의 상방압력이 한층 확대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으로 직접적인 비용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그간 누적된 유가 충격이 점차 파급되고 경기 개선세 확대에 따른 수요측 물가압력이 높아지면서 기초적 물가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중동전쟁 직후 상승한 뒤 횡보하고 있으나, 향후 국내 경기의 확장에 따라 추가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장·단기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기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반도체 실적 기대로 큰 폭 상승했으나, 이후 AI 투자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과 외국인의 차익실현 및 리밸런싱 매도로 상당폭 조정되었습니다. 환율은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 달러화 강세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 및 주택 매수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역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수도권 반도체 벨트의 주택가격 오름세가 가팔라진 만큼, 그간의 주식시장 호조와 향후 국내 경기 개선으로 확대된 가계 유동성이 주택 수요를 자극하여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2.75%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국내 경기 전망이 개선된 가운데, 소득여건 개선 등에 따른 수요압력 확대로 기초적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용 확대를 동반한 자산가격 상승 가능성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균형 누증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으며, 기업과 가계의 소득 개선세 및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주체의 전반적인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통화긴축 과정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재정 등을 통한 지원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대를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보다 생산적 분야에 대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성장·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에너지 공급망 회복 속도, 반도체 경기의 내수 파급효과, 소득 및 자산 증대에 따른 자산시장 유동성 유입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시점을 판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 토의결론

위와 같은 위원별 의견 개진 내용을 종합,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음.

(6) 심의결과

앞서의 토의결과를 반영하여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의결문을 작성,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음.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2.7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 세계경제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견조한 AI 투자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물가는 그간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 금리인상 기대 및 중동상황의 변화 등에 영향받아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국채금리는 상승하였다. 주가는 AI·반도체 경기 전망 변화에 따라 상당폭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이란 종전협상 이행 상황, AI 투자 전망,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 국내경제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 및 내수 파급영향, 중동사태 전개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 ☐ 물가를 보면,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농축수산물가격 상승폭도 확대되면서 3.2%로 높아졌으며, 근원물가(식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5%를 나타내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지만 그간 높아진 비용 및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2.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2.4%)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내수 개선 속도 및 임금 상승세 확산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1,500원대 중반까지 높아졌다가 외환수급이 개선되면서 1,400원대 후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상승하였고, 주가는 AI 투자 관련 우려 부각,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당폭 조정되었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나면서 큰 폭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는 확대되었다.
-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견조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물가는 그간 높아진 비용 압력이 당분간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측 압력도 점차 높아지면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상 기초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 ☐ 금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 7명 모두 찬성하였다.

<의안 제24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안)>

(1) 의장이 의안 제24호를 상정하였으며, 담당 부총재보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1.00%에서 연 1.25%로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 (생략)

(별첨)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I. 경제상황 평가(2026.7월)

1.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견조한 AI투자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AI투자 호조와 양호한 고용·소비로 2%대 초반, 유로지역은 중동전쟁 충격과 수출 부진 영향으로 0%대 중반, 중국은 내수와 수출 간 양극화가 심화되며 4%대 중반의 성장이 예상된다.

세계교역은 AI투자 관련 교역 호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가 예상되며 7월 이후 美관세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 국제유가(브렌트유)는 6월 중 미·이란 간 MOU 체결 등으로 70달러대로 하락하였지만, 최근 중동지역 긴장이 재고조되며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AI 활용영역 확대, 관련 인프라 투자 등으로 확장세가 지속되겠으나, AI 수익성 우려에 따른 투자 조정은 리스크 요인이다.

2. 국내경제

금년 중 국내경제는 중동정세 불확실성 지속에도 반도체 경기 호조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2/4분기에는 중동發 공급충격이 추경 등 정부정책으로 상당 부분 완충된 데다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성장률이 당초 예상(전기대비 0.2%)을 웃돌 전망이다.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회복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 영향이 여타 부문으로 파급됨에 따라 내수와 수출 모두 견조한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 개선으로 인한 수요압력 확대, 비용충격의 전이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 중 석유류 가격

이 국제유가 급등, 고환율 지속 등으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전분기(전년동기대비 2.1%)보다 큰 폭 확대된 3.0%를 기록하였다. 근원물가는 항공료 등 여행 관련 서비스와 내구재 가격을 중심으로 2.4%(1/4분기 2.2%) 상승하였다. 향후 물가 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변동폭 확대, 여름철 이상기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강화 등이 상·하방 리스크로 상존해 있다.

경상수지는 금년 중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유례없는 수준의 흑자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수지는 글로벌 시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컴퓨터(SSD)의 수출 급증으로 대규모 흑자를 나타낼 전망이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외국인 여행객 유입 증가, 고환율에 따른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둔화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적자폭이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 경기, 국제유가를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경상수지 전망의 상·하방 리스크는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지난해(+19만명)보다 둔화되겠으나, 고용률은 지난해(62.9%)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취업자수는 중동전쟁 영향, 일부업종 구조조정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내수 개선, 돌봄 수요 확대 등이 이를 완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고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회복흐름이 주춤하였으나, 내수 개선에 힘입어 금년 하반기부터 회복흐름을 재개할 전망이다.

II. 외환 국제금융 동향

1. 국제금융시장

지난 금통위(26.5.28일)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변화의 영향을 주로 받은 가운데, 위험회피심리와 주가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awkish한 FOMC 결과 등으로 강화되었다. 선진국 국채금리는 미-이란간 종전 MOU 체결 이후 인플레이션 경계감 약화 등으로 하락하다가, 7월 들어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상승 전환했으며, 미 달러화는 6월 FOMC 이후 금리인상 기대가 강화되면서 강세를 나타냈다. 신흥국의 경우 기술주 조정 등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 미 달러화 강세의 영향 등으로 주가와 통화가치가 대체로 하락했다.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개 양상, 미-이란간 군사적 긴장 재고조 여부, AI 관련 기대 변화,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향후 주요국 성장 여건 등에 따라 통화정책의 차별화 정도가 변화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될 수 있다. 특히 Warsh 의장 체제 하에서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변화, 통화정책 체계 개선 TF 결과 등에 따라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이란간 군사적 긴장 재고조 여부에 따라 유가 변동성 및 위험회피심리가 재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AI 업종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동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대한 기대 변화시 주식시장의 급격한 조정이 나타날 리스크가 있다. 한편, 영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장기국채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 국내 외환부문

국내 외환부문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미 통화정책 경로 변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흐름 등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외화자금 조달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도 지속, 6월 FOMC 이후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1,55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7월 들어서는 미 달러화 강세폭 축소, 수급여건 개선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1,500원대 수준으로 하락했다. 차익거래유인은 단기물과 장기물 모두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6월 중 중장기 대외차입 가산금리가 전월대비 큰 폭 하락한 가운데, KP 스프레드 및 CDS 프리미엄 등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6월 중 외국인 증권투자는 채권이 WGBI 자금 유입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만기 도래 등으로 순투자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주식이 리밸런싱 매도 압력 지속,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순회수를 이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순회수 규모가 확대되었다. 7월 들어서도 외국인 증권투자는 주식 부문을 중심으로 순회수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중 외환수급 통계를 보면, 투자거래에서 대규모 순유출이 이어졌으나 경상거래 순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순유입 규모가 확대되었다. 경상거래는 무역거래 순유입이 반도체 부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확대된 가운데 무역외거래도 투자소득을 중심으로 순유입이 늘어나면서 전체 순유입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투자거래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큰 폭의 순유출이 이어졌다.

III. 금융시장 동향

지난 금통위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중동전쟁 전개 상황,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AI 투자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다.

1. 자본시장

우선, 대다수의 시장참가자들이 7월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기준금리 기대경로도 상당폭 상향조정되었다. 주요 단기시장금리는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기대에 MMF 수신 감소, 증권사의 단기 조달 확대 등 수급 요인이 더해지면서 상당폭 상승하였다.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금리인상 기대가 강화되면서 큰 폭 상승하였다가 미국-이란 종전 합의 및 이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등을 반영하며 상승폭을 다소 축소하였다. 국고채 수익률곡선은 모든 구간에서 상방 이동하였다.

주가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9,000선을 넘어섰다가 6월 중순 이후 AI 투자 피크아웃 우려,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큰 폭 반락하였다. 외국인 증권투자는 채권투자가 WGBI 관련 자금 유입, 만기도래분 일부 재투자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주식투자는 차익실현 및 리밸런싱 수요 등으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순매도가 크게 확대되었다. 다만,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은 이러한 대규모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보유주식의 가치 상승 등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2. 신용시장

6월 은행 대출금리는 주요 지표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상당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상승하였다. 다만, 주담대 금리는 변동금리형 대출의 취급비중 확대가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다소 제한되었다. 기업대출금리도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모두 상승하였다.

6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이 4~5월 중 수도권 주택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기타대출도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상당 폭 늘어나면서 전월에 이어 큰 폭 증가하였다.

기업 자금조달은 반기말 계절요인과 직접금융 조달 부진에도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였다. 은행 기업대출은 반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 부실채권 매·상각 등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은행들의 대출공급 확대와 회사채 상환 등을 위한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대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직접금융 조달은 회사채 순상환이 이어지며 감소하였다.

3. 금융권 자금흐름 및 통화량

금융권 자금흐름을 보면, 반기말 요인으로 비은행권 자금이 은행권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가계자금의 주식시장으로의 유입이 지속되었다. 가계의 투자자금은 전월에 이어 금융권 예금과 기타대출 등을 활용하여 주식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물량을 소화하였다. 금융권 수신은 이러한 가계자금 유출로 비은행권 수신이 모든 업권에서 감소하였으나 은행권은 반기말 MMF 자금이 일시 유입되고 일부 반도체 기업 등의 여유자금도 예치되면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6월 M2 증가율(평잔기준, 전년동월대비)은 민간신용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국외부문 통화공급이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에도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로 줄어들면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